

開放된 印度의 컴퓨터 市場

인도는 최첨단기술 수입에 문호를 넓히고 있어 미국의 각 컴퓨터 메이커는 이 새로운 제3세계의 시장에서 대규모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컴퓨터 메이커 간부는 「인도는 중공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서방측 업계의 간부는 인도는 3년 이내에 수입전자제품의 시장이 연간 10억弗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라지브 간디수상은 취임이래 9개월간 컴퓨터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처음으로 허가하여 인도의 최첨단 기술 산업의 불에 길을 열었다.

현재 디지털 이큅먼트(DEC), 왕 레보레토리, 데이터 제네럴, 프라임 컴퓨터 등 4대메이커가 광범위하게 컴퓨터 제품을 공급할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도는 산업, 과학, 기술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퍼스널 컴퓨터에서 메인 프레임까지 이르고 있다.

동구권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DEC가 최근 인도의 철도 예약 서비스를 電算化하는 파일럿 계획용으로 4대의 미니 컴퓨터를 공급했다고 한다.

미국의 각 메이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은행업계이다. 인도에는 4만2,000에 달하는 은행지점이 있으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지점은 아직도 일부 은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작은은행은 노동조합과 업무전산화를 추진해도 좋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인도 정부는 정부기관의 근대화과 정책 결정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으로 있다. 인도 정부기관은 주로 서류를 손으로 쓰면서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V. P. 신 財務長官은 최근 뉴델리에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설립하는 8,000만弗 규모의 컴퓨터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衛星을 사용하여 인도 全州 및 直轄地의 컴퓨터와 수백 지구의 미니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穀物을 비롯하여 家族計劃에 이르기까지 약20억건의 정보를 蓄積하게 된다.

업계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4개의 컴퓨터 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2,400 만弗의 비용을 투자하여 일본제 컴퓨터 4대를 이미 구입해 놓았다고 한다.

海外 메이커는 대규모 시장을 電氣通信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인도에서는 국내메이커가 通信業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7억이상의 국민이 統合電話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전화기, 傳送/交換시스템의 구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電話機 設置에 투입할 투자액을 지금의 연간 약100만弗에서 1990년까지 연간 400만弗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메이커와의 합작을 통하여 交換시스템을 디지털化한다. 서방측 업계 간부는 電話回線이 개선되면 컴퓨터 제품과 OA機器의 도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인도 정부는 컬러TV용 부품을 제조하는 합작기업 상대를 해외 메이커에서 찾고 있다.

인도의 전자부품 업계는 1983년이래 해외투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이에 호응한 해외 메이커는 거의 없다. 인도 정부는 해외 메

이커가 自社 공장을 설립하든지 합작회사에 의한 제조공장에 巨額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각 해의 메이커는 기술 및 일부기기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投資計劃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도 정부는 또 독자적인 전자산업을 확립하므로써 컴퓨터 부품의 附加的인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도에서 제조되는 컴퓨터의 코스트는 서방측 제국에 비해 3~4배 높다. 정부는 국내 메이커가 部品을 보다 간단하게 수입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방측 관측통에 의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은 프린터와 디스크 記憶裝置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2년간 인도의 컴퓨터 시장에서 미국 메이커는 일본, 서독을 비롯한 유럽 제국의 메이커에 쉐어를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 이의 가장 큰 요인은 최첨단 기술

수출에 대해 미국의 규제가 대단히 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出荷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뒤진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미국과 인도 정부는 인도에 대한 최첨단 기술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각서에 조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했던 양국의 거래는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간디 수상이 작년 11월에 취임한 후에 발표한 야심적인 근대화 계획에 필요한 美國製 컴퓨터, 電氣通信機器, 電子製品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對인도 최첨단 기술 수출문제는 高性能製品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소련권으로 流出된다는 불안에서 美國政府內에서 신중을 기해왔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기우에 대해 인도 정부는 인도 최첨단 기술 공장을 검사하고 監視를 강화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P. 36에서 계속〉

세미컨덕터社나 인텔社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기업은 서서히 日本 工場建設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사는 모두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社는 최근 10년간 작은 판매사무소를 약 130~140명의 종업원과 제조능력을 지닌 子會社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84년의 동사의 5,000만弗(추정)에 이르는 日本에서의 대부분의 매상은 아직도 供給會社를 통한 것이다.

인텔社는 일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웨이퍼 제조공장의 건설을 고려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동사는 71년에 東京에 판매사무소, 81년에 子會社를 설립했다. 현재 인텔 社는 판매, 마케팅, 資金管理 및 엔지니어 部門에 400명의 종업원을 안고 84년 日本에서 1억弗(추정)의 매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지니스면의 考慮보다도 SIA가 日本에 가하고 있는 최근의 貿易摩擦 결과

가 미국기업에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모른다.

어떤 日本의 기업간부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들은 그들의 수요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 社의 와트슨社長은 「日本은 美國의 불만이 일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日本에는 日本市場은 과고들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데이터 웨스트社의 노리트部長은 「日本은 輸入品에 대해 보다 더 市場을 開放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개방을 하더라도 美國의 半導體企業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

日本은 유럽 또는 중공으로부터 수입을 늘릴지도 모른다. 「日本은 모든 貿易相對國을 滿足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노리트部長은 말하고 있다.